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AYBACK

가제 : 페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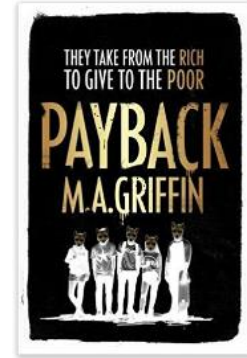
저자 : M.A. Griffi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8년 7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부적절하게 획득한 부자들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 후드, '페이백'의 짜릿한 모험과 그 뒤를 쫓는 자들의 치열한 추격전**

부자는 재산을 굴려서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에 쪼들리다 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불공평한 세상을 직접 바로 잡겠다고 나선 이들이 런던에 등장하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만 골라 가장 값진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를 익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일당은 '돈을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페이백'이라 불린다. 경찰도 손을 쓰지 못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춰버리는 이들의 행각을 보며 수많은 시민들이 열광하고, 팬까지 생긴다. 평범한 고등학생 토머스도 현대판 로빈 후드나 다름없는 페이백의 작전에 심취해서 이들이 해낸 모든 성과를 껴고 있을 정도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페이백을 바로 코 앞에서 보게 된다.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페이백의 절도 현장을 토머스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모든 사건은 토머스가 여름 방학을 맞아 미들랜드 호텔에서 짐 나르는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됐다. 기숙 학교에서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토머스에게 방학은 아무렇게나 보내기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사업가인 아빠는 매일 같이 출장을 다니느라 얼굴 볼 틈도 없고, 형도 바빠서 마찬가지였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시작한 호텔 포터 일은 적성에 딱 맞았다. 근무 일에는 새벽까지 일하면서 야간에 객실에서 요청하는 각종 심부름도 도맡아 처리했는데, 2주간 호텔 맨 꼭대기 스위트룸에 묵는다는 에디슨 루이즈 씨도 그렇게 알게 됐다. 미국에서 곤잘레스라는 덩치 큰 비서를 데리고 온 루이즈 씨는 사실 처음 호텔에 당도했을 때부터 토머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2주치 출장 혹은 여행 치고는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내민 서류가방이 루이즈 씨의 손목에 수갑 같은 잠금 장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토머스는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물건이 들어 있나보

다, 생각하면서 그 가방을 조심스레 옮겼다. 할 일을 끝내고 나가려던 토머스에게 루이즈 씨는 객실에 구비된 위스키 병을 건네면서 다른 종류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 날 이후 매일 저녁 그의 특별한 위스키 요청이 이어졌고 심지어 토머스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교환한 뒤 술이 떨어지면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 어느 날 저녁, 토머스가 지난 며칠 간 해왔던 것처럼 술병을 들고 객실 초인종을 누른 것은 거의 고정된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날은 뭔가 좀 이상했다. 일단 술을 채우기 위해 마스터 키로 객실에 들어간 토머스는 깜깜한 실내에서 인기척을 느낀다. 거실과 연결된 루프탑 정원과 수영장으로 나가는 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둘러보던 토머스는, 첫 날 루이즈 씨가 손목에 묶어서 가져온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작은 체구의 그림자와 마주친다. 침입자는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었다. 전부 마스크를 쓰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여러 명이, 갑자기 곳곳에서 튀어나와 가방을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쫓아가던 토머스는 그 중 한 명이 내리친 긴 봉에 맞아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도난 사실이 호텔 전체에 알려져서 경찰까지 와 있었다.

토머스는 나중에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두 눈으로 본 그들이 바로 ‘페이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토머스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들이 절대 성인이 아니고 또래 아이들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열여섯 살인 자신과 비슷한 나이임을 직감한 토머스는 페이백 일당이 훔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근처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이들을 찾아 나선다. 예상대로 한적한 공원에서 봉을 휘두르던 여자와 비슷한 키에 몸놀림이 빠른 소녀를 발견한 토머스는 그 뒤를 집요하게 쫓아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들의 아지트를 발견한다. 깃지와 코크, 베키, 그리고 칼리마로 구성된 페이백과 만난 순간이었다.

믿기 힘든 우연이 겹쳐 페이백과 만나게 된 토머스는 나라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일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멤버가 된다. 태어나 처음 ‘도둑’이 된 토머스는 쇼핑몰에 전시된 재규어를 훔치는 첫 임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의 구현 활동을 시작한다. 평범한 소년에서 세상을 놀라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으로 바뀐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토머스는 미들랜드 호텔에서 만난 루이즈 씨를 완전히 잊고 말았다. 그가 페이백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물건을 빼앗기고 절대 가만 있을 위인이 아니며 지구 끝까지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새로운 모험에 빠진 토머스와 친구들에게 어두운 세력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온다.

<저자 소개>

M.A. 그리핀(M.A. Griffin)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플레처 모스(Fletcher Moss)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데뷔 소설 『The Poison Boy』는 2012년 타임/치킨하우스 출판사(Times/Chicken House) 아동소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목 : THE MORTIFICATION OF FOVEA MUNSON

가제 : 포베아의 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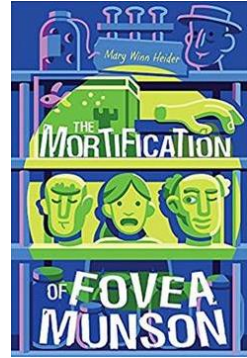
저자 : Mary Winn Heider

출판사: Disney-Hyperion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미들그레이드 소설



* “영동하고 영리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소설” - 뉴베리 상 수상작가, 매트 드 라 페나(Matt de la Pena)

* “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배꼽 잡는 상황이 주인공의 냉소적인 말투로 전해진다. 웃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쉽게 질리는 사람들까지 만족시켜 줄 만한 소설” - 「커커스 리뷰」

부모님이 둘 다 의사라고 하면 다들 ‘우와!’하고 놀라곤 하지만, 포베아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엄마아빠가 외과 의사이긴 한데, 병원에서 다친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응급 호출을 받고 불려가서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이 지긋지긋해진 포베아의 부모님은 ‘예측할 수 있는 환자’만 받기로 결심했다. 바로 시체였다.

시체 해부 실험실을 운영하는 두 의사의 외동딸로 태어난 포베아는 이름도 의학 용어로 ‘눈깔’을 의미하는데다 중간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로 지어 놓은 부모님에게 질려버린 7학년생이다. 그나마 여름 방학마다 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캠프장 생활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좌절되면서 포베아는 크게 실망한다. 갑자기 캠프장이 있는 지역에 야생 뱀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져서 사고 위험 때문에 아예 캠프가 취소된 것이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실험실의 유일한 직원인 휘트니가 예고도 없이 그만두자 엄마아빠는 포베아를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일에 끌어들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싫다고 단호히 거절해봐도 소용없었다. 결국 포베아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체들이 가득한 실험실 로비에서 접수원으로 방학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일이 상상치도 못할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포베아가 시체를 싫어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집에서는 시체를 ‘사랑’하고 심지어 ‘고마워’하기까지 하는 엄마아빠가 쉴 새 없이 시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질릴 수밖에 없었고,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포베아의 미래를 의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부모님이 이 시체 해부하는 일까지 이어 받으라고 할 까봐 더더욱 싫었다. 유능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 학생들과 손 기술을 갈고 닦으려는 현직 외과 의사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의 실험실 문을 두드리고, 두 분은 병원에서 시달렸던 것처럼 조금만 아파도 불만을 토로하고 의사들을 음식점 직원 부리듯이 하는 무례한 환자들 대신 아무 말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데다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지만, 포베아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인체 구조에도, 각 기관의 기능에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눈이 빛날 만큼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학

교에서 친구들이 포베아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다 시체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대부분의 학교 아이들이 '시체'라는 단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였다. 그 시체로 뭘 하느냐는 중요치 않았다. 짓궂은 아이들은 프랑켄슈타인의 곁을 지키는 허리 구부정한 조수 이름인 '이고르'로 포베아를 불러대며 괴물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해부 실험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는 남다른 포베아의 반응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어 모든 아이들이 포베아를 피했다. 제일 친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포베아는 말 그대로 외톨이가 되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시체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해부 실험실의 접수원이 되어 오가는 학생들과 의사들을 맞이하고, 전화를 받고, '위험' 표시가 붙어서 배달 오는 시체 혹은 사람과 동물의 각종 신체 부위를 전달 받는 영 재미없는 업무를 시작한 첫 날, 포베아에게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 엄마아빠가 외부 강의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실험실을 비워야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오전 수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회의실을 엄마 부탁으로 청소하던 중에, 갑자기 실험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실험실은 부모님의 극성 때문에 아예 현관을 잠갔고 건물에 남아 있는 사람은 포베아 한 명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 목소리일까? 게다가 그 목소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한 명이 아니었다! 마지못해 실험실에서 일은 하지만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한 포베아는 할 수 없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들어가고, 믿기 힘든 광경과 마주한다. 부모님이 냉동실에서 꺼내 놓은 사람의 머리 세 개(명?)가 말을 하고 있었다. 목 아래로는 몸이 전혀 없는 머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수다를 떨고 포베아에게 말을 거는 기막힌 상황과 맞닥뜨린 것이다.

앤디, 루크, 맥으로 자신들을 소개한 이 세 개(명)의 머리는 포베아에게 꼭 들어줘야 할 부탁이 있다며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른 머리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포베아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때부터 여름 캠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된다. 이발소에서 벌어진 4중주 합주와 협박을 일삼는 장의사를 골탕먹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 포베아는 그 과정에서 서먹해진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훨씬 더 멋진 새로운 친구도 추가로 생긴다. 기발하고 코믹한 설정만큼 페이지마다 눈물 나게 웃긴 표현들과 개그, 말장난이 가득하고 영똥한 인물들(머리들)의 활약을 따라가다보면 결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리 윈 하이더(Mary Winn Heider)는 버몬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극단 'Barrel of Monkeys'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